



인물탐방 성소의원 박희두 원장

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 창립 ‘가슴뿌듯’



박희두 원장이 자신의 서재에서 그린닥터스의 미래비전을 밝히고 있다.

수술실에서 막 나오는 푸른 가운의 그를 만났다. 대연동 성소의원 박희두(62) 원장. 그의 넉넉한 웃음은 사람을 편하게 하는 무언어가 있었다.

그는 지난해 작고한 박종근 의의 3남1녀 중 차남으로 경북 김천 출생이다. 초등학교부터 우수한 성적으로 ‘장’은 도맡아 했으며 모범적이고 손재주가 좋아 의대진학 때 외과를 권유했노라고 구순맛이 기념문집에서 그의 선전은 회고했다. 선전은 경성사범 출신의 교육자. 오랫동안 경북지역의 초등학교장을 역임했으며 교향장로였다.

교육자인 선전의 지도와 신앙 속에서 성장한 그는 경북고를 거쳐 부산의대 졸업, 81년 의학박사학위 취득, 부산대 교수, 홍릉대학 캄페리병원 교환교수를 지냈다. 88년 대연동에 외과외원을 개원하면서부터 남구와

갑상선수술 5,000례 분야 최고 권위

한민족 의료봉사 네트워크 구축 목표

인연을 맺었다. 갑상선 진료경력 30년을 자랑하는 그는 명실공히 갑상선전문의로 전국에서 불리는 환자들로 병원은 북적댄다. 갑상선수술 5,000례를 달성한 박원장은 “병원에서의 하루는 매일 기도로 시작한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진료하고 수술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신임장로로 사무하고 있는 대연교회에서의 신앙생활만도 30년이 넘는다. 그의 형과 남동생도 장로라고 한다. 그래서 ‘4부자 장로’는 생전 그의 선전의 큰 자랑거리였다.

그의 현재 직함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가 없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부산시 의사회장과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공동대표 겸 이사장, 부산권 의료산업 협의회 이사장이다.

그린닥터스는 부산에 본부를 둔 국제 의료봉사단체다. 20여 명이 참여한 달동네 의료봉사단을 모태로 ‘국경과 민족, 종교, 정치를 초월해 사랑과 평화, 봉사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창립정신으로 2004년 2월 출범했다. 회원은 의사뿐만 아니라 정치, 기업, 사회단체 등이 동참했으며 그가 부산YMCA 이사장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린닥터스는 국제적 재난지역과 국가재해, 대형인명사고 등 응급의료체계가 필요한 지역에 긴급 투입된다. 부산 그린닥터스는 지난 5월, 190km의 사이클론이 강타한 미얀마에 10여명의 의료봉사단을 파견, 폐쇄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입국이 쉽지 않

음에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피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현장에서 40여 명의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광안시 인민정부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여진의 위협성이 도사리고 있는 피해현장에서 소속하며 생명을 담보로 펼친 봉사활동은 지극한 인류애가 있다면 어려운 일이다. 지난 9월, MBC프로그램 ‘닥터스’에서는 고통 받는 이재민들에게 인술을 퍼는 의료봉사단의 생생한 현지 활동상황을 방영했다. 그 외에도 동남아의 지진해일 피해지역 등에도 의료봉사단을 보냈다.

그린닥터스의 활동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1월, 개원 3주년을 맞은 ‘개성공업지구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이하 개성병원)의 운영이다. 개성공단 내 남북한 노동자들의 진료를 위해 설립된 병원으로 남북한 의료계의 교류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대사로서 통일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고 있다. 개성병원은 그린닥터스의 역점사업으로 150명상 규모의 종합병원 개원을 목표로 재일마련에 분주하다.

블라디보스톡, 뉴욕, L.A, 상해, 파리, 브라질 등 해외에도 지부를 두고 있는 그린닥터스는 해외지부를 더 늘려 해외동포들과 아울러 ‘한민족 의료봉사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재난지역 어디에서나 그린닥터스의 푸른 삼발마크를 만날 수 있을 것이

다. 머지않아 그린닥터스의 노벨평화상 수상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를 일.

봉사는 사랑의 실천이다. 박원장의 봉사는 기독교로부터 기인한다. 한울장애인자활센터 이사장, 국제와이즈맨(봉사단체) 한국동부지구 총재, 전 부산YMCA 이사장 등 굵직굵직한 단체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연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 없이 순수 봉사정신으로 일을 해결해서가 아닐까요”라는 대답이었다. 그는 2005년 제1회 ‘자랑스런 부산시민상’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그는 문학도이기도 하다. 1997년 1월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한 수필가다. 진료와 봉사활동으로 바쁜 와중에서도 글과의 끈을 놓지 않고려 한달에 한 편 정도는 꼭 글을 쓴다. ‘생활인의 수상’, ‘사자의 꿈’에 이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쓴 글들을 모아 곧 세 번째 수필집을 묶을 예정이다.

박원장은 슬하에 2남1녀를 두었고 장남은 그의 뒤를 이어 외과 전공의다. 앞으로 10여 년간은 더 환자진료에 힘을 계속, 이후엔 “장남에게 병원을 맡기고 글이나 쓰며 봉사하는 삶을 소망한다”며 아울러 “그동안 소홀했던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향후계획을 밝혔다. 그는 평생 봉사하는 삶을 깨달지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 즈음에서 편안함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그의 가슴에는 사랑에 대한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봉사자의 집 속에는 면역기능을 강화하는 물질이 보통사람보다 50%정도 더 많이 들어 있다고 한다. 일찍이 ‘태래사효’라. 봉사는 건강해지는 비결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까. 그는 열두 5년은 더 젊게 보였다.

이두래 명예기자

우리구 사람들

까막눈 할머니 한글 깨우치다



대연5동 한글교실 어르신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대연초등학교 3학년2반 교실은 할머니들로 북적댄다. 모두들 한글을 깨우치려는 늦깎이 학생들로 대연5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글교실 수강생들이다.

2006년 4월 개설된 한글교실에는 60~70대 할머니 37명이 등록해 한명도 빠짐없이 한글 깨우치기에 여념이 없다. 못 배운 것이 한이 된 학생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하버드생 못지않다.

한글교실은 원래 대연5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하지만 날로 불어나는 수강생들로 인해 지난 4월부터 1동1교 상호교류협력 사업으로 수업장소를 이곳 대연초등학교로 옮겼다.

이날 학생들은 “와! 우리도 학교를 간다”라며 서로 부둥켜안고 신나했다. 수업은 전직 교사 출신의 이정란(79·금빛평생교육봉사단)선생님이 맡아 우리말 기초부터 수준별로 체계적인 수업을

하고 있다.

사제시간의 정은 나쁘다.

선생님의 말씀이 나오자 모두들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못배운 한을 풀어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 학교를 그만 뒀다는 강말선(75·대연5동)할머니는 “한글을 몰라 서럽고 부끄러웠던 적이 많았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제는 웬만한 글자는 모두 읽고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할머니 학생들은 그동안 못 배운 죄(?) 탓에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어두운 그늘이 있었지만 한글교실에 참여하면서 가족들에게 몇몇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건장하고 밝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차홍길 동장과 이정명 주민자치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교실을 찾아 가방을 전달하며 더욱 면학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늦깎이 학생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줬다. ☎ 607-4805

사회 약자 섬기기 본격 나서



남구오목도여성합창단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지역과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오목도 합창단(단장 김옥란)이 이번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사회 약자 섬기기에 나섰다. 합창단은 지난 13일 열린 구민장터에 참여해 회원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용품을 팔아 얻은 수익금 50만원을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했다.

합의회는 앞으로도 바자회 등을 계속해서 열어 어려운 이웃을 돌볼 예정이다.

합창단은 이에 앞서 지난 7일과 8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5회 용호장승축제 기간 동안 40여명의 회원들이 뜻을 모

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축제 첫째날인 7일 합창단은 칠순과 팔순, 구순을 맞은 저소득층 홀로아르신 20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전기 썬집기 20대를 전달하며 사랑을 나눴다.

합창단은 다음날 열린 아버지날 어르신 회관잔치 행사에도 참가해 합창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 한바탕 선사하는 한편 1천여 어르신들의 점심식사를 도우며 보람된 하루를 보냈다.

김옥란 단장은 “30여 년 간 노래를 통해 주민들의 사랑을 달래고 용기를 불어넣어줬던 합창단이 나눔의 시대를 맞아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 사랑을 전하는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영란 명예기자

■ 화제의 인물 - 부경대서 특강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 감독

마라톤, 불굴의 도전정신 일깨워

“누군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그 결과보다 과정이 더 궁금해집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성공 뒤에는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주익의 영웅” 황영조(38)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 감독이 지난 5일 부경대 초청을 받아 남구를 찾았다.

이날 황 감독은 “21세기 리더십 강좌” 특강에서 “16년 전 바르셀로나를 달리던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말로 얘기를 풀어 나갔다. 그는 “유달리 비탈이 많고 기운도 삼키 30도를 웃돌아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라며 “경기 해설자가 일본 선수에 비해 체력이 여유 있어 보인다고 했지만 사실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황 감독은 “결승점을 통과하고 난 뒤 자신이 금메달리스트라는 영예를 안은 것보다 그동안 힘들게 훈련해왔던 기억들이 주마등처



황영조 감독이 특강을 통해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럼 스쳤다”며 “이후부터 누군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과정이 더 궁금해지

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메달을 땀다는 사실, 다시 말해 결과보다 금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살의 어린 나이에 금메달을 목에간 황 감독은 참석한 500여 학생들에게 “대학 시절은 가장 놀기 좋은 때이지만 가장 공부하기 좋은 시기이므로 가속도를 붙여 스스로를 다지는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알찬 청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영조 감독은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선수단 감독과 강원대 스포츠과학부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동시에 마라톤교실 운영하며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황 감독은 내년 초 바자회를 마련돼 외국에 나가 공부를 더한 다음 스포츠 외교나 한국을 일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포부를 이날 강의에서 밝혔다.

사랑의 김밥 말았죠

5년째 어르신께 김밥 대접

문현1동 최태수·정순임씨 부부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동네 어르신들께 매년 한 끼의 점심을 대접해온 부부가 있다.

지난달 28일, 문현1동에서 ‘김밥 전국’ 식당을 운영하는 최태수(52)·정순임(53) 부부는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점심을 대접했다.

경남 합천이 고향인 최 씨 부부는 2004년 5월 이곳에서 식당을 개원한 이래 매년 한 차례씩 5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다.

한 번 행사 시 보통 150~200명이 참석하며 김밥과 다과, 음료, 과일 등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들 부부의 세 딸과 직원도 함께 일손을 거든다.

올해는 최 씨의 고향 친구가 수박을 잔조하여 행사가 한층 넉넉해졌다고 즐거워한다. 행사 전에는 사람이 적지 않을까 걱정되고 행사가 끝나면 행여 서운하지 않았을까 걱정

이 된다고. 특히 예년에 오시던 분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마음 편치 않았다고 한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묻자 최 씨는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



을 대접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돈이 있어도 마음 안 찡그린다.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내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노력해 대접하고 싶어 시작했다”라며 결연해했다. 조촐하게 차린 밥상을 받은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즐겁고 마음 편하다고 하는 최 씨 부부의 말이 가슴을 훈훈하게 만든다.

김정화 명예기자

유익하고 알찬 지역사회혁신서비스 사업 신청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2008. 7. 1.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기대에 부응코자「어린이 영어캠프」등 아래와 같은 사회서비스 사업을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업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08. 7. 1~7. 21 (단 영어캠프는 6.23~7.4까지)

◆신청 자 : 서비스 대상자 또는 대상 아동의 부모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별 내역 참조

사업명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어린이 영어캠프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 남구 거주 만6세이상(02.1.1 이후 출생) 아동으로서 아래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0. 0~1세 아동 제외) • 1가구 1인 지원 원칙 • 2007년 아동인지서비스를 신청한 자는 접수 제외	• 남구 거주 초등학교 3~6학년층 아래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07. 1.1~02.12.31 이전 출생자) • 비만자 20%이상의 비만 아동 • 가구당 1인 지원 원칙	• 만7세이상~만12세 이하 아동 (07. 1.1~02.12.31 이전 출생자) • 비만자 20%이상의 비만 아동 • 비만도 1인 지원 원칙
선정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인 경우 가능 • 건강보험료 문은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인 가구인 경우 가능 • 건강보험료 문은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 소득이내 재산기준 없음 • 신청별 비만지수는 주민생활지원프로그램으로 문의
선정 방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저상위계층 • 2순위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적은 가구순으로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저상위계층 • 2순위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적은 가구순으로 선정	• 신청별 체중이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 중 선정 • 비만도가 높은 아동, 연령이 높은 아동 우선 선정
서비스 내용	• 대상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주 1회 1:1 독서지도 • 도서 대여 또는 지급 • 독서관련 정보제공 등 ※ 자세한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가격은 아래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 한국어 및 영어인 강사진과 영어회화 위주의 교육 서비스 ※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아래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 대상아동 비만도 분석 및 평가 • 운동 처방 및 지도 • 영양 및 건강관리 상담, 정보제공 ※ 자세한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가격은 아래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시행 기간	2008. 8. 1. ~ 2009. 5. 31 (10개월)	2008. 8. 1. ~ 8. 22 (22일)	2008. 8. 1. ~ 2009. 7. 31 (12개월)
신청시 구비서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3개월분 월급명세서 • 자영업자 등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 신청인(아동의 부모) 신분증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3개월분 월급명세서 • 자영업자 등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 신청인(아동의 부모) 신분증	• 최근 6개월 이내 측정된 키와 몸무게 확인 가능서류 - 학교발행 신체발달상황 통지서, 건강검진결과서 등 • 신청인(아동의 부모) 신분증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바운드 동진성곡비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발견센터 영교 구문학습 한솔교육 (502-9239) (611-8321) (622-6247) (643-2217) (469-4506) (897-3193) (611-6135) (633-0700)	부경대학교 (051-620-6852~3) 경성대학교 (051-620-4377~8) 국민체육센터 (02-415-2690)	에버케어 (1566-2273)
서비스 신청비용	월 25천원 월 25천원 월 25천원 월 25천원 월 25천원 월 25천원 월 25천원	월 200천원 월 40천원 월 40천원	월 40천원
서비스 신청비용	월 25천원 월 25천원 월 25천원 월 25천원 월 25천원 월 25천원 월 25천원	월 200천원 월 40천원 월 40천원	월 40천원
서비스 신청비용	월 25천원 월 25천원 월 25천원 월 25천원 월 25천원 월 25천원 월 25천원	월 200천원 월 40천원 월 40천원	월 40천원

사업명	근로자 근로의욕 향상	1:3세대 통합교육 프로그램	은퇴후 생애설계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으로 제조업 분야에 3개월 이상 계속 종사자중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월 2,550천원) 이하인 자	•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중 희망기관	•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고령화 대비 전문지식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 하고자 하는 성 의 노후나
선정 기준	• 근로자의 평균임금(월 2,550천원) 이하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 65,320원 이하	• 지원대상 기관중 15명5명 단위로 신청 여부 • 1개 기관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물리칠 경우 신청할 수 제한 있음	• 주민등록상 주소를 부산시에 둔자 • 30~50대 실직자 및 전문직종 퇴직 자 우선
선정 방법	• 접수 선착순	• 접수 선착순	• 접수 선착순
서비스 내용	•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상담 서비스는 필수 • 건강검진, 동아리활동(헬스, 낚시, 등산 등), 가족문화체험(자연, 전통 문화, 여행교육 등), 노후 및 직장 상담 중 3가지 이상 선택 ※ 자세한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가격은 아래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 농작물 수확, 수목림, 공예, 전통놀이, 전통먹거리 등 체험프로그램 • 예술교육, 인성교육, 한문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 중 5시간 정도 ※ 자세한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가격은 아래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 4개월 과정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 노인생애계획, 조양자 기법과정 (60회) 노인생애설계 조양자 전문 과정 (82회) ※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아래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시행 기간	2008. 7월~12월(6개월),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2008. 7월~12월(6개월), 서비스 제공기간 : 월 1회	2008. 9월~12월(4개월)
신청시 구비서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3개월분 월급명세서 • 재직증명서(제조업 종사 및 근무기간 3개월 이상 확인 가능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자가 기관의 대표자 및 교사의 경우 재직증명서 • 신청자가 학부도 대표의 경우 증명할 수 있는 기관 발급 증명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서비스 제공기관	구명중환자복지관 (051-283-3045) (051-532-0115) (051-271-0560)	금정구종합복지관 (051-516-3045) (051-508-2163)	부산광역시니어클럽 (051-516-3045) (051-507-6373~5)
서비스 신청비용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서비스 신청비용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서비스 신청비용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월 200천원

※ 매일 20일까지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